

---

# 겨울,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그해 겨울』, 『삼포 가는 길』,  
『아버지의 땅』에 나타난 겨울 이미지-

한혜경 ·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

## 1. 겨울의 이미지와 소설

겨울이다. 길가 나무들의 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햇빛은 가지들만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찬 바람에 코트 깃을 올리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낀다. 몸도 마음도 뚱뚱 얼어붙게 만드는 매서운 추위를 녹여줄 따스함이 더없이 그리운 계절이다.

이 황량한 겨울 풍경을 눈부시게 채색하는 것은 하얀 눈이다. 하얗게 온 천지를 덮은 눈 세계를 만날 때, 우리는 추위를 잠시 잊고 탄성을 터뜨리게 된다. 촉감은 차가운데 시각적으로 포근한 풍경 앞에서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겨울은 이중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찬 바람과 추위는 분명 고통과 시련이지만, 주변 풍경을 하얗게 변화시키는 눈송이들은 아름답고 정결하다. 척박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꿈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이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견디면 봄이 돌아온다는 희망을 안고 있기에 겨

울은 암담하지만은 않다. 또 작은 온기라도 나눌 수 있는 누군가 존재한다면 겨울이 춥기만 한 계절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겨울 이미지는 소설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봄을 맞기 위한 인내의 시간,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한편, 하얀 눈이 만드는 정화의 세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문열의 『그해 겨울』은 한 젊은이의 겨울 여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겪은 일들을 되짚어 서술한 이야기이며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겨울날 집 없이 떠도는 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탐스러운 눈송이들이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어주듯이, 이데올로기나 전쟁 같은 어두운 기억들을 지우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 2. 젊은 날의 방향, 봄을 맞기 전의 겨울

“이제 그 겨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는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어 감정은 많은 여과를 거쳐야 하며 과장과 곡필로 이루어진 미문(美文)의 부끄러움도 알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문열의 중편 『그해 겨울』(1979)은 서른이 넘은 화자가 10년 전 겨울을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젊은 ‘나’가 겪는 겨울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입사(入社)의식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 들어와 열렬한 사랑도 해 보고 이념과 문학에 빠져들기도 했으나, 21살 가을, 모든 것에 좌절을 느끼고 학교와 도시를 떠나기로 한다. ‘근거 없는 허무와 절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시작하는 이 방랑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직시하게 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끝이 난다.

여행의 초반 ‘나’의 모습은 ‘소년의 허영심’ ‘소년적인 흥취’를 지니고 ‘피상적 좌절’과 ‘원인 모를 슬픔과 허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동안 이념과 문학에 몰두했고 이데아를 탐구했노라 자만했으나 그의 감정은 원인을 찾지 어려운 모호한 감상에 자주 빠지며 정신 세계도 미숙한 소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폐병쟁이 사내에게 간과당하자 그전까지 유패했던 여행은 곧바로 ‘허망한 방향’으로 곤두박질친다.

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약병을 지니고 다니지만 그의 머릿속의 죽음은 관념적 죽음일 뿐이다. “쓴 이 잔을 던져 버릴 것이냐 참고 마저 마실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다를 향하는 모습은 비장함을 과장된 연기로 표현하는 연극배우를 떠올리게도 한다. 그래서 그의 여행은 치기와 자아도취, 과장된 절망과 허무 등이 조금씩 섞인 낭만적 구도자의 방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겪는 것들을 ‘터무니없고’ 무의미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내가 지새운 피로와 번민의 밤’은 젊은이에게 허용되는 특권이자 젊음이다움이라 할 수 있으며,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헤맨 어둠은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의 한 과정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여정에서 만나는 폐병쟁이 사내, 친척 누나, 칼같이 사내 등은 각기 다른 형태로 인생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년의 단계에 있는 그를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폐병쟁이 사내는 구도자연(求道者然)하며 떠벌린 그의 지식이 엉터리임을 깨우쳐준다. 학문을 탐구했다고 여겼으나 단지 허명에 갈급했던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친척 누나는 불행하게 끝난 사랑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들려준다. 곧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학교로 돌아가 ‘더 읽고 더 생각해’ 보라고 충고한다.

칼같이 사내는 젊은 날 도모했던 꿈이 배신자의 밀고로 와해되어 19년간의 감옥 생활을 복수의 일념으로 버텨온 자이다. 그러나 막상 배신자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고는 증오를 잃어버린다. 결국 바다에 칼

을 던짐으로써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망집을 버리는데, 주인공 역시 가지고 다니던 약병을 던짐으로써 ‘감상’과 ‘익기도 전에 병든 지식’을 버린다. 이로서 6개월여의 여정을 끝내며 소년의 시기를 마감하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보다 견고한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겨울 여행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전형적인 통과 의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을 지나고 난 그의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필 봄’이 놓여 있다.

### 3. 눈발 날리는 어두운 현실, 고향로서의 겨울길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혈뿔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하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황석영의 단편 『삼포 가는 길』(1973)의 첫 장면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하고 있는 영달의 모습은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길 위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겨울 새벽이라는 시간은 그의 처지를 보다 처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집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겨울은 잔혹한 계절이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영달은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참이다.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던 정씨와 백화라는 작부가 더해져 세 사람이 함께 감천 기차역까지 가는 하루 동안의 여정이 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이들이 걷는 길은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차가운 겨울 바람에 눈보라 치는 몇 십 리 길을 돈을 아끼느라 걸어가고

있으며, 허기가 지고 떨어져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잠시 폐가에 들어가 잔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피고 몸을 녹이는 짧은 시간이 허용될 뿐이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 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장면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공간으로, 모닥불로 인한 열기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교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서로 반감을 갖고 있던 영달과 백화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둠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이들의 처지에서 따뜻함을 오래 만끽할 수 없다.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지만 이곳은 진짜 집이 아니라 가짜 집이므로 다시 찬바람 부는 길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말뚝'을 박고 정착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떠도는 영달, '재봉실이 나들나들하게 닳아' 빠진 속치마처럼 겨우 스물두 살이지만 이미 늙어 버린 백화, 고향에 가려고 했으나 고향이 변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지는 정씨. 뜨내기 생활을 청산하고 따뜻한 집과 고향에서 살고 싶은 이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작품의 후반부에서 정씨는 고향 섬이 육지가 되고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정씨가 기억하는 삼포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 열 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구, 고기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구 말이지." 이러한 삼포의 이미지는 유토피아이다. 공사판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향이므로 정씨는 영원히 고향에 갈 수 없다. 남아 있는 고향은 자꾸 공사판으로 변해 가고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가 일어나고 ‘하늘을 잊’어가고 있다.

마지막 문장,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 가듯이 이들의 삶은 앞으로든 겨울의 추위를 뚫고 걷는 삶이기 쉬우리라. 제목 ‘삼포 가는 길’이 내포하는 것처럼 이들은 늘 고향 ‘가는 길’ 위에 있을 것이다.

#### 4. 어둠을 정화하는 순백의 기원(祈願)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1984)은 군 복무 중인 이 병장 ‘나’가 바라보는 부대 근처 마을 풍경으로 시작된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초겨울의 빈 들녘에 음산하게 꾸물거리는 까마귀들이 밭고랑을 뒤적이다가 인기척에 놀라 후닥닥 날아오른다. “하늘 한 귀퉁이에 불길한 검은 얼룩을 만들며” 날아가는 까마귀떼는 “넓은 날개깃을 펼터일 때마다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릴 것만 같은 섬뜩한 불쾌감”을 준다. 까마귀의 날개가 ‘검은 형질 조각 같은’ ‘검고 칙칙한 날개’로 묘사됨으로써 작품의 시작은 어둡고 불길한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러한 음산함은 주인공의 불행한 가족사에 드리운 어둠으로 연결되며 또 그 뒤에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가 가로놓여 있다. 곧 주인공은 6·25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가진 인물이다.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고 자라던 그는 중학생 무렵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을 떨치지 못하며 어두운 소년으로 자라난다.

‘저주’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아버지의 환영은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음산한 모습이다. 그 환영은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 시달리게 만들므로,

그는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며 생일상을 차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할 뿐이다.

이에 비해 어머니는 아버지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상과는 상관 없이 ‘눈매가 고운 분’이며 ‘마을에서 단 하나 뿐인 학생’,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려고’ 한 자, ‘나직한 음성’의 자상한 남편일 뿐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깊숙한 상흔’으로 받아들이는 데 비해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닫힌 마음은 그가 속한 부대에서 훈련 중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된다. 이 유골은 갈비뼈와 두 팔과 손목뼈를 철사 줄로 묶인 채 묻혀 있어 과거 6·25때의 희생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골을 수습해 봉분을 만들기까지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떠올린다. 줄곧 음산한 모습의 환영으로 나타났던 아버지는 ‘쨍하니 열려 있는’ 눈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총살당하는 모습으로 떠오르는데, 어느 발고랑이나 산기슭에 무덤도 없이 묻혀 있을 생각에 이르러 그는 결국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의 냉혹함은 많은 비극을 초래했으나, 어머니처럼 외피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까지 변질시키진 못한다. 까마귀 떼가 퍼뜨리는 음산함과 불길함을 하염없이 쏟아지는 함박눈이 하얗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어머니의 기다림과 간절한 기원은 전쟁의 잔인함과 죽음의 음산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도입부를 음산하게 물들였던 죽음의 이미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로 덮여 하얀빛으로 정화되는데 이 하얀색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인 것이다.